

## 발자크의 <유동성> 테마 연구

임                    현  
공 이 문 분 학 과  
(1986. 4. 30 접수)

### <요 약>

발자크 특유의 상상현상인 유동성 테마를 「가죽」, 「루이 랑베르」, 「실내담자」 등 세 작품을 통하여 분석해 보았다. <불빛의 배경>이라는 발자크 자신의 말처럼, 그것은 존재 내부의 영기의 전달현상이다. 피괴적이고 광기적인 불이 아닌 순화된 영기의 표현인 유동성은 대상에 대한 인식작용임과 동시에 상상작용의 근본이 된다. 유동현상으로서 지경의 흐른, 피의 흐른, 意志, 石化 등을 분석하고, 그 테마가 어떻게 현시자 visionnaire로서의 발자크와 연결되는가를 지적하였다.

## Une Étude du Thème de Fluidité de Balzac

Lim, Hun

Département de la langue et littérature françaises

(Received April 30, 1986)

### <Résumé>

On a analysé le thème de fluidité, phénomène d'imagination particulière balzacienne, à travers 「La peau de chagrin」, 「Louis Lambert」, 「La recherche de l'absolu」 dans 「La comédie humaine」. Comme Balzac l'a nommé l'onde des flammes, c'est une sorte de phénomène de transmission de chaleur de l'intérieur humain. C'est la base d'une méthode de reconnaissance et d'imagination dans 「La comédie humaine」. Et on a analysé les nerfs, le sang, la volonté, la pétrification comme les fluides importants, et indiqué comment ce thème peut être la clef pour résoudre Balzac visionnaire.

## 1. 서                    론

발자크의 작품을 읽어가다 보면, 그가 <유동성 fluidité>이라 부른 그 특유의 상상현상에 주목하게 된다. 이것이 그가 작품인 「가죽」이후 거의 모든 작품에서 이 현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발자크가 이 주제에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유동성>의 분석은 발자크 뿐만 아니라 靈氣의 중요성이 부각되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연구대상이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발자크가 그 문제에 대한 동시대의 중요한 연구자인 메스메 Mesmer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메스메가 유동성을 <원간 사이의 의지의 상호교환><sup>(1)</sup>으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발자크의 상당한 유사성이 발견된다.

(1) J. Starobinski, La relation de critique, p.203, Gallimard, 1970.

본고에서는 「인간회귀」중 「천학연구」축의 중요한 새 직물—「가죽」, 「구이 랑베르」, 「질네담」—을 통해 유동성 테마를 분석코자 한다. <유동성 이미지는 상징적 가치로 지능이 있다><sup>(2)</sup>는 말은 인성현이며, 이러한 문기는 「인간회귀」의 상상세계를 열 수 있는 본질적인 방안이나 생각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필자크 연구자들이 「인간회귀」을 읽다 보면 글밖 눈에 띄는 유동성 문체에 별로 주목하지 못했은은 누리운 사실이다. 신사 그랬다 하나라도 소수에 지나지 않고, 또 넓박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니. 예컨들어 필자크의 상상력은 <시간·공간의 無化작용><sup>(3)</sup>이라 말하는 뽀레의 경우, 그러한 정의 자체가 유동성 문제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의 사용이나 의미에 한낱 글자의 가치기 없고 있으며, 리자크 역시 좀더 중요한 맥락에서 파악하고는 있으나 <유동성은 「인간회귀」축의 심미과학의 기본소스이며, 그 인본과 세계 인기의 기초><sup>(4)</sup>라고 언급하는데 그럴 뿐, 텍스트를 통한 자세한 분석은 가지고 있지 않다.

위에서 언급한 새 가들을 내한 이유는 씨즈텍스가 「인간회귀」 필부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이같이 「질네담」축의 중요한 작품이며 본고의 테마인 유동성 문제의외 단색에서도 인성의 점진적 변주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가죽」에서 모호한 개념으로 기록된 유동성이라는 말이 「구이 랑베르」에서 문기적으로 이본적 탐구의 대상이 되며, 「질네담」에서는 그 이본의 실험성이라고 되듯이 인본관계나 사물의 인식에 정서의 원리로서 적용되고 있다.

이제 인성 모호해 보이는 유동성이라는 말의 몇가지 특성을 규정하고 직물과의 관련하에 분석해 보도록 하자, 그 테마의 중요성과 필자크 상상력의 일면을 드러내 보이기로 한다.

## II. <유동성>—물질성·운동성·상상적 가치

유동성이니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는 두가지 측면에서 정의해 볼 수 있다. 우선 <액체나 기체가 흐르는 현상>, 혹은 <천체나 존재, 사물로부터 발전되는 기묘하고 진기한 움직임 또는 영향력><sup>(5)</sup>으로 그 의미를 규정할 수 있다. 그 중 첫번째 정의가 <물>·<안개>·<공기>등 우리가 직적으로 보거나 느낄 수 있는 유체의 흐름을 지칭한다면, 후자는 非可觸的이며 상상적인 유체의 흐름—예를 들어 <전기·기기의 흐름>, <시성의 흐름>—을 가리킨다. 따라서 우리는 후자를 전자의 구별하여 <입상적 유동성>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며, 본고에서 다루어질 연구 역시 바로 그 부분에 초점이 주어질 것이다. 또 그 밖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의어를 연거늘 보며, <흐름 courant>·<기능 ondulation>·<磁氣 magnétisme>·<放射 rayonnement> 등이 그 범주에 포함된다.

이제 이러한 경의를 바탕으로 그 몇가지 특성을 규정해 보기로 한다. 우선 유동성의 물질적 가치이다. 유동성과 관련하여, 우리는 <물>·<피>·<뒤프>·<닐쥬>등의 액체의 <빛>·<공기>등의 기체를 급변 상상할 수 있다. 이러한 유체 이미지들에 대한 분석이 본고의 주된 관심이 이념은 앞서 말한 바 있듯, 한가지만 지적하자면 이것들이 인간의 상상력과 밀접한 관련에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크 자신은 유동성을 <불꽃의 물질 les ondes des flammes><sup>(6)</sup>이라 표현하면서 <불>과 <빛>이라는 두 물질적 원소의 결합체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불의 낭성적 성격—공격성·외향성·환기—과 빛의 여성적 성격—유연성·滋養性·순화력—이라는 대비를 통해 필자크의 문성세계를 그 두 원소의 긴장적 가치에서 구별한 리지르의 견해를 직간 언급코자 한다. 그는 <불꽃의 물질>이라는 필자크의 정의에 의거해서, 유동성은 <액화된 불>·<다는 물>등으로 부르며 <불>과 <빛>—불의 理想화된 형태<sup>(7)</sup>—의 중간적 단계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도식은 필자크 일부의 성격 분석에도 적용되어, 불의 공격성·피괴성 「가죽」의 타피엔, 「구이 랑베르」, 「질네담」의 필자크 클리예스 등—에서 순화된 불, 즉 유동성—만 「크레기누」등히 여성 인물들—을 거쳐 불의 이상적 형태인 빛—「세라피나」에서 워프러드의 비나의 昇入—에 이르는

(2) Ibid, p.196.

(3) G. Poulet, La distance intérieure, p.134, Plon, 1952.

(4) J. P. Richard, Etudes sur le romantisme, p.14, Seuil, 1970.

(5) Dictionnaire-Grand Robert.

(6) Balzac, Pléiade, p.757 Balzac.

(7) G. Bachelard, La psychanalyse du feu, p.174, Gallimard, 1949.

정창과정을 분석하고 있다.<sup>(8)</sup> 결국 불변적 차원에서 본 유동성은 불과 공의 선형계로 불과 빛의 공간에 위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나온은 유동성의 유동적 기지이다. 앞서 논의하듯 영거현 <흐름>·<기능>·<박기>등의 말에서 능명 안 수 있듯이, 유동성은 건국 어떤 물질이 움직이며 흐르는 현상이다. 또 앞서 유동성의 순환적 기지물 논하 면서 언급 했듯이, 그 운동성 역시 유동성의 생성시 가치의 밀집한 편재에 있음은 물론이다. 예컨대,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존재 내부의 긴장 유체는 그 운동성으로 띠어임아 인간의 상상력과 밀접한 관계로 기된다. 가스페르는 <내전에 에네르지가 있었다. 이 가지는 「가죽」에서 「세라피디」에 이르기까지 <철학연구>의 거로인 이룬다><sup>(9)</sup>라고 밝히고 있는데, 유동성 문제 역시 이 세계를 움직이는 비만에 대한 밀 자크의 관점의 표현인 <에네르지-운동>의 문제의 동원한 맥락에 있음은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유동성 테마의 운동성과 관련하여 한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즉 유동성이 두 대상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면, 그들 사이에 흐르는 어떤 실체 substance의 존재를 상상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조나로벤스키는 데카르트의 능동진성 분석에서 코코이드의 리비도에 이르기까지 유동성 문제를 史的으로 고간리비치 베르케 이후 연구가들을 <유동성론자>의 <반유동성론자><sup>(10)</sup>로 구분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들 모두가 유동성 자체를 국경하는 것은 아니지만, 후자가 수제 내부의 심리지 문제에 주목했다면, 전자는 두 대상 사이에서 움직이는 어떤 물리적 요인 agent physique의 흐름을 상상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발자크는 전자, 즉 유동성론자의 입장에 서고 있다. 그는 두 대상 사이에 어떤 실체의 흐름을 상상하고 「부어 밤베르」에서 그것에 대한 이론적 답을 시도하고 있다. 각품중 광베르의 그리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서경의 보는 것은 어떤 가벼운 에네르성 실체 une substance éthérée의 신물이다. 바로 이것이 전기, 열기, 마, 전류·자기 유체 fluide galvanique, magnétique 등으로 불리우는 현상의 거로인 이룬다. 그리고 이 실체의 변화가 바로 물질 matière이다.><sup>(11)</sup> 이렇게 서자되는 유동성에 대한 언급은 그가 <유체의 왕>이라 부른 <意志 volonté>의 연구로 까지 나아간다. 뒤에서 언급하겠기에, 여기서 어떤 흐르는 실체 즉 유체의 집중된 표현인 의지가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는 것 만큼 간단히 지적하고 넘어가기로 하니, <의지는 흔히 五宮이라 불리는 감각기관에 의하여 표현된다. 그런데 그 五宮중 비각·후각·후각·청각은 실제로는 단 하나의 기능, 즉 기사에 지나지 않는다.><sup>(12)</sup> 유체인 의지가 표현되는 五宮중 시각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나머지 감각을 그것에 종속시키는 발자크의 견해가 특히하다.

마지막으로 부질성, 운동성과 관련하여 유동성의 긴장적 가치를 언급한 바 있다.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피>, <담즙>, <침>, <거기>, <빛> 등의 유체들은 그 말 속에 이미 많은 상상적 가치로 표현한다. 또한 <애제거이고 실 스며들면, 고개는 기체든 어떤 정도 속으로도 침투할 수 있는 유인한 실체><sup>(13)</sup>의 운동 현상인 유동성은 그러한 다양한 기법성으로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이렇게 유유히 흐르기도 하고, 뚫고 들어가지기도 하며, 아무런 미미한 공간 속이라도 실 스며드는 실체들의 속성이 <유체 이미지는 상상력에 엄청난 매력은 수며, 유동성은 상상력의 특권 받은 요소 중의 하나><sup>(14)</sup>라는 말을 실득력 있게 만들고 있다. 이제 발자크의 작품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유동성 테마를 분석하면서, 그 특유의 상상 현상을 고강해 보기로 한다.

### III. 발자크의 작품과 <유동성> 테마

#### 1. 「가족 La peau de chagrin」-유동성 연구의 시작

비교적 초기 작품이며 「철학연구」의 서두에 위치하는 「가족」에서는, 발자크가 유동성 문제에 관심을 보

(8) J. P. Richard, op. cit. p.15.

(9) Pléiade, p.60.

(10) I. Starobinski, op. cit. p.203.

(11) Pléiade, p.684.

(12) Ibid, p.695.

(13) J. P. Richard, op. cit p.15.

(14) Starobinski, op. cit. p.19.

이제 기가 뉘어나 뒤에서 나뉘 나뉘 두 자품에 비해 그 면위가 그기 강체에 머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서 우선 그 용어 낱어 동일성을 갖지 못하고, 그 의미 또한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다. <유동성>이라는 말 외에도 <침투 pénétration>·<진기섬광 étincelle électrique>·<내적진율 tresaillement intérieur>·<磁氣的 마티 fascination magnétique> 등의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우리의 실정 속에서 풀고 있는 유체 fluide에서 비롯되는 야릇한 힘에 사로잡히서, 라파엘은 내부의 기관이 유동성 fluidité이라 불리는 힘에 가기도 모르게 이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초용동이가지 미지 불결피도 같은 피복은 그의 내부에 불타 일으켰으며,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움직이는 ondoyant 듯한 희미한 안개관 통하여 보이는 것이었다.>(15)

견방에 뒤끼인 주원공이 거리를 방황하는 상변의 묘사이다. 기록된 고뇌에서 비롯된 어떤 유체가 그의 내부로 침입하며 그 주위로 퍼져가고 있다. 그것은 마치 <불섬의 비산>처럼 퍼지나가지 온몸을 사로잡으며 의식마저 흐릿하게 만든다. 이러한 존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유동현상이 <초용동>·<불기의 기문>·<안개> 등의 과동현상에 비유되고 있음은 주목할 수 있다. 안개는 지시적 진행되는 그 유동성과 퍼짐성, 기변성에 의해서, <불섬치다 ondoyer>라는 동사는 부르르유 두 개의 모음 [o]의 그 기이에 거인 막막한 처음 [d]의 내입에 의해 과동은 균일 상성케 하며 유동성 이미지에 실 부합되고 있다.

또 <진정 속에서 풀고 있는 유체>에 대하여 스페르벤스키는 감각과 운동이 존재 내부에서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가를 말하면서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데기프트는 운동원성을 설명하면서 감각 sensation은 신경진유에 이만 지극이 사해져 뇌에 이룬 선포로 해서왔다. 감각신경이 짧이라하면, 운동신경은 일종의 싹이나. 따라서 운동은 감각보다 더 고차원적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현이나 원이 아니라, 끊임 없는 어떤 실체의 흐름이다. 동작이나 행동 등은 다른 부잇보다도 이 유체역학에 의해 설명된다. 동물의 다양한 운동 행위는 뇌실에 저장된 유체에서 비롯되며, 바로 이 유체가 행위에 어떤 확장저 가치 valeur d'expansion를 부여한다. 정신은 유체에 내하여 <중심-뇌실>로 부디 <주변-근육>으로 퍼져나가는 이 실체 substance를 통하여 평립한다.>(16)

이강에서 보듯이 그는 감각진정에 내하여 운동원성을 우위에 놓고, 어떤 자극에 의해 감각진정이 뇌실로 흐르면 운동원성이 근육 통해 흐르는 유체에 의해 근육에 명령함으로써 운동이 이루어진다고 단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의 주목할 것은, 마치 그녀의 흐름이 라파엘의 온 내부를 휘감는 것처럼, 존재 내부에서 현과 근을 따라 움직이는 어떤 실체의 흐름 즉 유동성 현상이다.

<가리에 앉았을 때, 나는 가슴 속에 전기흐름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 어떤 내부의 목소리 voix intérieure가 나에게 '그녀가 지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의 시선은 거공할 듯이 되고 기속 이쪽 속에 묻혀있는 그녀를 잠세세 믿게해냈다. 나의 영혼은 마치 구멍이 콧구 향하듯이 그녀를 향해 날아갔다. 어떻게 나의 감각이 그것을 미리 알았을까? 이것은 소위 내거시움 tresaillements intimes의 일종이다.>(17)

티펜이 극장에서 린중적인 여인 페트라를 맞이하는 장면이다. 이 분석에서 우리는 빈치코의 <상상적 유동성>의 면모를 실 알아 볼 수 있다. 외부의 자극이 존재내부에 파문을 일으켜 <진기흐름>으로 각 신경세포에 전달되어 운동에 <내거시움>을 일으킨다. 외부의 자극에 대한 순간적 반응인 이 <내거시움>이 만자코의 인능으로 하여금 그 태성을 미리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신경세포의 반응은 곧 <바티보나>라는 의지가 유동원성으로 인식된다. 발자코가 감각기관중 기적은 가장 중요시 했음은 약지 말한 바 있는데, 라파엘의 시적은 <놀라운 북시역>을 가지고 태성을 향하여 <날아가기 voler> 그것은 인식한다. 이제 그의 상상력은 可觀의 거리를 넘어서서 시지와 공산을 無化시키며, 자유롭게 기묘케 비상하면서 태성을 꾸꾸는 것이다.

<이 이어쁜 여인의 가슴과 등, 의복에 새겨지는 눈썹의 움직임은 고자, 그녀의 그윽한 삶 전체가 마치 산기침처럼 지렁 같가기 라피엔에게로 전달되어 왔다. 그의 어깨가 그녀의 얇은 방시안 테이스에 닿기 그녀의 뜨거운 열기 chaleur가 등미하게 전달되어 왔다. 일교에 aloès의 격르는 듯한 향기는 이미 그간 도취시키 버렸다. 하나의 강애물에 의해 촉발되는 그녀기에 더욱 환상적인 그의 상상력은 한 여인의 모습을 즉

(15) Pléiade, p.68.

(16) Starobinski, op. cit. p.124.

(17) Pléiade, p.155.

직 물결으로 새겨주는 것이었다. 똑같은 생각으로 용분된 그들의 얼굴은 이미 서로 응시하고 있었다. 서로 石化되어 pétrifié 그들은 킴독 속에 갇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슴을 정결하게 딛고 있는 얇은紗를 통하여 그의 짙은 시선은 백합처럼 하얗고 아름다운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있었다.>

라파엘이 페도라와 병당한 생활을 영위한 후, 생민은 댓가로 모든 욕망을 만족시켜 주는 부적인 힘으로 옛날 가난하던 시절 인구에 몰두하면서 가르치던 하숙집 딸인 뽀린느 Pauline를 만나는 장면이다. 소녀였을 그녀가 이제는 유신을 받아 백작의 자위를 밟은 부유한 처녀로 변신해 있다. 간접 간직한 페도라의 관능 속에 몰려 있던 라파엘이 아찔했던 처녀 신선한 뽀린느를 만나고자 했는데 이제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다. <꿈만이 싹을 향해 날아가듯>, 자석 처녀 이끈던 이들 인연은 이제 서로가 맞닿을 만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존재 내부의 열기의 전달인 유동현상이 시각과 더불어 촉각에 의해 두 인물 사이에 이루어진다.

기쁘고 고르게 물결치는 뽀린느의 숨결을 보자, 그녀의 그윽한 삶 전체가 <진기섭평>처럼 단편에 니피엘의 내부로 전달된다. 우리는 여기서 <갑자기 soudain>라는 부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존재내부의 욕망·열기의 전달인 유동성 상상현상은 마치 진기 흐른 치밀 짙게 내상을 감싸며 뒤잡는다. 말자크가 유동현상을 비유하는 <진기>·<사기>등의 말에서도 우리는 그 신속한 속도감을 읽을 수 있다. 또 열렬한 사랑에 사로잡힌 이들은 단 한번의 류의 스킴에 의해서도 그들 내부의 뜨거움을 서로 전달한다. 상기된 육체의 모든 感覺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식용하는 말자크의 <상상력은 그것이 하나의 대상에 의해 촉발되기는 하지만 더욱 확성적으로 그 내상을 꿈꾸게>된다. 응고된 상태가 아니라 대상의 내부까지 자유롭게 꿈꾸는 라파엘의 상상력 역시 뽀린느를 <불꽃>으로 꿈꾸며, 표면을 깨뜨리는 그의 시선은 배일에 가려져 있는 그녀 가슴의 하얀 색과 형태까지도 쉽게 알아보고 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어깨가 스치는> 촉각에 의해 자극된 이 두 인물이 <石化>되는 상태이다. 존재내부기 마비되는 石化된상은 곧 지나친 외부의 충격으로 날미암아 신경세포가 이상흥분, 경화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감각의식은 마치 시계톱의 중심에 위치한 거미의도 같이, 網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부터 오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다. 넓히고 실건 섬유망 속으로서는 진동이 전달되는데, 그 진동이 지나치게 이완될 경우 신경섬유가 끊어지거나 연약해져 버린다. 반면 충격으로 진동이 지나칠 경우 가느다란 신경섬유는 이상흥분으로 경화될 위험이 있다.><sup>(18)</sup>

존재 내부의 순간적 마비 때문에 유체의 흐름이 중단되는 현상이 곧 石化이다. 위의 두 인물 역시 예기치 않은 재회의 기쁨이라는 충격으로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하는 순간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고 있다.

<칙학과 같은 열광에 휩싸여 라파엘은 뽀린느의 손을 잡고 일리히 입을 맞추었다. 그의 입맞춤은 너무도 맹렬해서 마치 번개과도 같았다. 이들은 모두 잠깐에서 벗어나 영평적으로 포용하면서 서로를 이해했다. 마치 첫 입맞춤에서 두 영혼이 서로를 위선히 소유하듯이.><sup>(19)</sup>

石化상태에서 깨어난 두 연인의 감성 표출이다. <칙락>·<영광>·<말삭>등의 말들은 그들 내부의 이상흥분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다.

## 2. 「루이 람베르 Louis Lambert」—유동성과 <意志>론

<말자크의 思想이 익어가는 연구><sup>(20)</sup>이리 말해지는 이 사본에서, 그의 상상력은 일종의 유동체인 빛에 민감해서 진다. 람베르의 지지 모험은 곧 빛과의 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것을 위해 세계의 중요한 감각이 절성되고 있다.

프뢰크링 근처의 사서관에서 스발 부인의 도움을 받는 동안에는 그의 삶은 사면과 밀착되어 있다. 진선된 빛과 정기의 자연 속에서 그의 성전은 육체와 호흡이 이루기 엄청난 독서는 그에게 현재성을 형성해 준다. 이러한 조사는 태양의 빛을 담은 지인과 격리되면서 깨어지기 시사한다. 정규교육을 위한 방돔 Vendôme의 학교는 외부의 차단된 유형지에도 같은 곳이니. 빛에 민감한 식물적 인간인 람베르는 규율을 요구하는

(18) Starobinski, op. cit. p.198.

(19) Pléiade, p.229.

(20) Balzac, Hachette, p.244, 1959.

학교 교육 속에서 마치 응달의 꽃처럼 시들어간다. 다섯 살에 칠·구악을 읽던 철재가 이제는 교실에 기명하니 캉파 만든 응시하는 문세아로 바뀌어 버린다. <내가인에 익숙해서 있던 그로서는 수십 명이 우물거리는 벽속에 갇혀 신나는 것은 너무도 교역이었다>(21). 기억과 그를 서리시키던 이 벽은 곧 사익적 경제성을 자란다는 장애물이 된다. 이렇게 자인과의 거리에서 시가된 낭베르의 불행은 흔히 신인으로 묘사되는 가리 생관에서 절경지 나적을 받으며, 그의 식물지 삼은 결국 밟히는 원천히 단견된 빌노의 Villenoix 양의 어두운 침실 속에서 시늬어 버린다.

빌노는 이 작품에서 소위 인간의 <내적 자인 nature intérieure>에 대한 세계가 연구를 시도하며, 그가 <유체의 힘>이라 부른 총칙에 대한 탐구가 그 핵이 되고 있다. 신비몽교도 몽상적인 낭베르의 유년기 체험을 알려주는 두개의 에피소드를 모기로 한다.

첫째로 유년시절 자기에게 뜨거운 사랑을 쏟아 붓던 어머니에게서 느꼈던 경험이다. <어섯살의 낭베르는 요담에 누워, 그녀가 머리를 빗을 때 머리카락으로 부터 솟아오르는 전기섬광 étincelles électriques 등을 바라 보았다>(22).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통해 그는 자기 외근부의 놀라운 미션은 얘기하고 있다. 그 노인은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면 사람들이 신디옥 구하는 그러한 인물이다. 그는 농부들에게 언세 비가 오고 날이 개이지, 언세 과중하고 수확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예언하곤 했다. 그런데 언젠가 영수증 분실 문제로 사악한 농부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낭베르 집안에 일어났다. 가족들은 그 노인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한다. <예수야, 그것은 너무 중대한 문제라서 혼자 결정할 수가 없구나, 죽은 내 부인과 상의해 보아야겠어.>(23)라고 말하면서 나가더니 곧 돌아와서는 <부담까지 잘 필요가 없었어. 그녀가 세움가에서 내 앞에 나타나더니 공동인 점에 그 영수증이 있으니 소송에 이길 것이라 말하더군>(24)이라고 말한다. 결국 그 노인의 말대로 모든 문제는 잘 해결된다.(25)

자기 어머니의 머리결 위로 밀려드는 신비로운 유체를 고민서 낭베르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선규의 원칙이 곧 생각 idée이나 의지작용 volition이 분출되는 유동성의 기조가 되는 것은 아닐까? 思考 pensée의 소모와 설정적용에 따라 색이 바뀌고, 빠져버리기도 하는 머리카락은 정녕 전류지 모세관 현상을 형성하는 것은 아닐까? 인간내부에서 만들어진 실체로서 자발적으로 방출하는 의지 volonté의 유동현상은 분대전지의 현상과 자이가 큰 것일까? 인간의 생각의 심성이나 흐름은 보이지는 않지만 활발하게 작용하는 麴香(공노주의 향낭을 말려서 만든 향료로 흥분제로 쓰이며 티벤, 四川성, 운남성에서 생산된다고 함) 마립자의 기화작용과 차이가 큰 것일까? 신경유체가 思考에 대응하듯이, 피의 흐름이 總칙에 대응하는 것은 아닐까?>(26)

인간 복잡한 이러한 질문을 통해 우리는 발자크의 <의지-유동성>론의 원칙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세기되는 문제는, 첫째 무척 난해한 듯한 용어들 <의지 volonté-의지작용 volition>, <사고 pensée-생각 idée>의 상호 관계의, 둘째 의지와 유동성의 관계는 무엇인가로 요약된다.

발자크는 의지 혹은 사고를 전기흐름과 유사한 유동현상으로 파악한다. 주 그들 모두가 인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실체의 끊임없는 흐름의 현상으로서, <체적으로 <의지는 피의 흐름의 작용>이고 <사고는 신경유체의 작용>이라고 말하고 있다. 앞서 우리는 「사죽」에서 <신경유체-사고>의 관계를 논한 바 있는데 육망기능으로서의 의지는 피를 통해 그 유동성 성격이 잘 드러난다. <신성보다 더욱 유동성 테마를 잘 보여주는 것이 피이다. 피는 모든 유체의 脈脈의 모본이다. 피는 터득있게 방출되면서 그 溫氣로 유체공간을 깊이 감진다. 그 붉은 색과 뜨거운 자인스럽게 불의 이미지와 결합되며, 미끈미끈하고 흐르고 회전되며 노처로 은밀히 스며드는 속칭은 이것이 최상의 액체인운 빌래 준다. 또 그 뜨거운 유체의 휘밍스를 암기

(21) Pléiade, p.608.

(22) Ibid, p.608.

(23) Ibid, p.626.

(24) Ibid, p.635.

(25) Ibid, p.65.

(26) Ibid, pp.226-227.

(27) Ibid, p.626.

한다.)<sup>(27)</sup>

말차르트는 의지·의기작용·사고·생각능의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면서, 소위 인간의 <내적 자연>의 비밀을 깨고자 한다. 그에 의하면 욕망기능인 의지는 인식작용인 사고가 이루어지는 상황 *milieu*이며, 사고는 생각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된다. 결국 의지와 사고는 발생적 위인이기, 의지작용과 생각은 그 산물로서 외부적 삶의 차원에 속한다. 또 <의지·사고>가 유동적 차원이라면, <의지작용·생각>은 구체적·구체적 차원이다. 그런데 인간의 <내적 사인>의 근본 원천인 의기가 곧 유동적 차원이려면, 유동성이야 말로 진정 그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인간 내면은 유동성 속에 잠겨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인간 내면에 대한 내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제 그는 두번째 에피소드를 통해 본 비전 *vision*에 대한 담의로 넘어간다. 마술사·미지광이·<제2의 눈>을 가진 사람들·진짜된 사람들 소위 신비로운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해명코자 한다. 물론 여기서 권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말차르트의 신비주의 자체가 아니라 그 신비로운 비전을 가능케 하는 장난, 즉 <비전-유동성>의 본체이다. 앞서 말한 그들은 각종의 나레이터가 말하듯이 <어떤 순간에 미친한 힘을 불러들여서 그것을 부여된 한 점에 두사한 수 있는 재능><sup>(28)</sup>을 소유한 자들이다. 이들은 <비전에 의해서 누가지 양식의 공간, 즉 '시간-정신적 공간'과 '거리-물리적 공간'을 無化시킨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로 향하는 시선 *vue rétrospective*에 의하여 과거를 재구성하기도 하고 예감에 의해서 미래로 투주하기도 한다.><sup>(29)</sup>

그런데 여기서 그는 이러한 비전이 가능한 상황으로 <사고의 물질성>을 상정하기에 이른다. 즉 그는 인간의 기교나 물질에 동일한 구원으로서 어떤 실재의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 <사고든 물질이든 지상의 모든 것은 그 현상의 기본이 되는 어떤 에테르성 실체 *une substance éthérée*의 산물이다.><sup>(30)</sup> 이 세계의 모든 물질 사이에는 그 실재의 효용이 존재하며 상호 인적작용을 한다. 여기서 그는 <물질과 물질>, <물질과 사고> 사이의 共感 혹은 反感의 경우를 그 예로 들고 있다.

<베일 *Bayle*은 숫아오르는 물은 보며 밀직을 일으켰고, 에리스투스는 물고기 냄새만 맡으면 얼이 났으며, 스칼리셔 *Scaliger*는 물병이만 보면 창백해졌다. 이 세가지 예는 부분적 실체 *substances aquatiques*에서 비롯된 反感의 경우이다. 반면 앙리 3세는 고양이를, 알베르 윈수는 멧돼지를 보면 기절했는데 이것은 동물 냄새에서 비롯되는 反感의 예이다. 또 니콜 드 메디치는 장미 그림만 봐도 몸살이 났으며, 베이컨은 원석이 있을 때 씹이던 앵아 누웠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가 원석이 끝날 때면 다시 생기를 회복하는 것이었다.><sup>(31)</sup>

이러한 물질과 존재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말차르트는 유체인 의지가 내부 운동에 의하여 모였다가 밖으로 투사되며 어떤 대상에 건달되는 원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시간적·공간적 거리를 넘어서서 다른 대상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며, 그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 비전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내적 자연>에서 시작될 말차르트의 유동성에 대한 인식은 자연과 우주로 확대되어 결정술·마술등 신비세계에 대한 탐구로 넘어간다. 이것은 「무이렐베르」 후반부에 보이는 슈벤브로그에의 환상을 또 「세라피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신비주의의 경사를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내부는 유동성에 잠겨 있다>라는 표현과 더불어, <우주는 유동성에 잠겨 있다><sup>(32)</sup>라는 표현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 3. 「절대탐구 *La recherche de l'absolu*」-창작의 원리로서의 유동성

광적인 주인공 발파자르 클라에스 *Balthazar Claes*와 그 집안의 비극적 실운 예고라도 하는 뜻이, 이 작품은 폴랑드르의 우울한 풍경묘사로 시작되고 있다. <구름 낀 하늘, 축축한 공기, 비좁은 거리의 그림자 등이 이 집의 운기를 빼앗아 버려 보기에조차 서글프게 만들고 있었다.><sup>(33)</sup> 이 작품의 모든 사건이 고통스럽고 메노가 흐르는 그 집안에서 일어난다. 주인공 발파자르가 외부와 차단된 이 밀폐된 공간 밖으로 나오는

(27) J. P. Richard, op. cit. pp.16-17.

(28) *Pléiade*, p.606.

(29) *Ibid.*, p.629.

(30) *Ibid.*, p.684.

(31) *Ibid.*, p.631.

(32) *Starobinski*, op. cit. p.203.

경우는 난 두 빈 밤에 없다. 거의 狂人이 되어 거리를 헤매는 것과 엄격한 새산을 용광로 속에 던진지킨 후, 단 마르그리프에 의해 심에서 쫓겨나 추방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공간의 폐쇄성은 편집광 처럼 <절대 탐구>에 투두하는 주인공의 성격과 잘 조화되고 있다.

안기 람베르의 정선적 모험은 빛과의 관습이라고 했는데 이 작품에서도 독자는 마치 한낱의 수채화란 보는 듯한 명암의 묘시에 주목할 수 있다. <깊음과 어두움이 교차하는 빙, 빛은 벨아들이는 쥘정, 그리고 심연에 있는 照輝 óbène의 기지 위로는 빛이 닦쳐흐르고 있었다. 아름다운 햇살이 스며드는 웅집질은 마키 나무 뿌내기에 쏟아지는 가을 햇살 처럼 부드럽고 애수에 찬 각색의 색조로 가득 차 있었다... 비스듬히 집안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커네에 의해 번사되는 자부심으로 그 여인을 감싸고 있었다.>.(34) 우유했 색조로 가득찬 이 웅집질은 化石石 제로에 몰두하느라 사정도 버리고 사랑도 식은 남편 때문에 고뇌로 기울어지는 말파자르 부인이 지내는 곳이다. 분위기 설정과 인물의 성격이 잘 조화되고 있다.

이러한 빛에 의한 분위기 설정은 작품 도키에서 발견된다. <정원에는 대대로 물려오는 수 많은 진기한 듀올립으로 가득차 있었고 그 꽃들은 초록색 보이는 이 집의 내부를 풍요로운 색으로 조가미 처럼 장식하고 있었다. 부인은 황혼의 햇살이 이 꽃들을 마치 보시 치면 만드는 광경에 몰두하고 있었다.>.(35) 이 문맥에서의 듀올립은 우리가 흔히 꽃에서 느끼는 발랄한 아름디움과는 거리가 멀다. 황혼녘의 비단결 같은 듀올립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여인의 심리나 고상스런 집안의 분위기와 연결되어 오히려 짙은 애수를 느끼게 한다. <한때는 그도록 잔란하고 빛나던 안마당이 해가 기울면서 다시 어두워치고 침침해졌다. 마치 이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에 대한 예언적 이미지가 커리도 한 듯이.>.(36) <잔란하고 빛나디>와 <이두음>이라는 두 형용사 사이의 내조에 의해서 강조되는 우울한 분위기는 황혼이라는 시간과 더불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가족」에서 시작된 유동성 인구는 「루이 람베르」의 이론 정립을 거쳐 「절대탐구」에서는 실제로 인물들 혹은 인물-사물 사이의 근세에 창작의 원리로써 사안스럽게 적용되고 있다. 앞서 유동성을 <존재 내부의 열기, 즉 불의 순화된 표현>이라고 했는데, 이 작품에서 발자르는 삶 자체를 하나의 연소, 불태우기 combustion로 정의하고 있다. <모든 삶은 연소에 지나지 않는다. 광원 foyer의 강도에 따라 그 지속성이 결정될 뿐이다.>.(37) 이러한 발자르의 생명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이 세계의 모든 사물에 생명이 존재하며 연소의 정도에 따라 그 지속이 틀릴 뿐이다. 예를 들어 광물같은 연소가 잠재적이기에 풍뢰사용이 시시히 진행되는 반면, 식물은 液의 분비작용이 끊임없이 연소작용을 세습해 하며 생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무한히 생존한다.

인간의 경우는 어떠한가? <지성의 최고 표현이며 思考에 의해서 창조력을 행사하는 인간은 모든 생체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연소작용이 이루어진다. 그 결과물이 육체 속에 남는 인산염, 탄산염, 황산염 등이다. 이 실체들은 모두 受胎의 원천인 전기적 유동성이 인간에 남겨 놓은 흔적이 아닐까? 이 신기 유체가 다른 어떤 동물 보다 인간에게서 더욱 다양한 것은 아닐까?>.(38) 생명은 곧 연소이며 그 연소가 인간 내부의 유체의 흐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앞서 말한 바 있다. 다만 람베르가 막연히 실체라고 표현한 것은 말파자르는 화학자답게 여러 이름을 붙이고 있을 뿐이다. 또 람베르가 손톱을 쏘는 내부의 유체의 물리학적 표현이라고 말할 것 처럼, 말파자르는 인간 일상에 세기시는 고뇌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마치 <폭발한 과산 주위에 응고되는 용암>.(39)처럼 존재 내부의 연소작용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발자르는 본능적으로 사랑을 알고, 예감이나 어떤 경우에 민감한 여성에게 특히 그 유동성 원상의 우월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발파자르는 그 부인이나 딸 마르그리프와 대조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전자가 불의 공격성으로 파멸된다면, 후자는 지극히 순화된 상상적 유동성으로 느끼며 미래를 예견한다. 말파자르의 광기에 부인이 눈물을 흘리자, 그 고뇌의 눈물까지 화학 성분으로 분석하려 드는 남편에

(33) Pleiade, p.664.

(34) Ibid, p.666.

(35) Ibid, p.666.

(36) Ibid, p.726.

(37) Ibid, p.719.

(38) Ibid, p.719.

(39) Ibid, p.666.



내해 경악하미 그녀는 말한다. <시인은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었어요. 당신이 아무리 시스니 기과볼 필이니 해보아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내세를 내다보는 능력을 실명하지는 못할 시에요...시인을 만드는 비경의 힘, 학사들 만드는 추근의 힘 등은 도시로 분석되거나 관찰될 수 없단 말입니다.>.(40) 소위<길내탐 />에 끌두라는 과학자 말자자르 보나는 여성적 적위에 의한 부인의 말이 더욱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녀는 김케를 예견하듯 남편의 시도를 <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한다.

<건기점 방이 일으키는 감각에 비교할 수 있는 가벼운 전율이 안락의자에 묻혀 있던 그녀를 흥분시켰다.>.(41) 위층의 나카병 실험실에서 괴물처럼 쿵쿵 울려오는 남편의 발자국 소리를 듣자, 그녀의 신경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면이다. 또 그녀는 딸 마브그리프가 엠마뉴엘에게 던지는 시선을 보자, 만의 생각의 지 밑바닥까지 누룩해 버린다. <자기 남이 그를 좋아하는사들 일러고 힌쪽 눈을 던지면서 먼의 영혼 속은 모두 읽이 버렸다.>.(42) 허빈 던진 시선으로 영혼 속을 꿰뚫는 부인의 상상력은 바로 그녀의 정언의 내적 적용—유동성에서 비롯되고 있다. <경연적인 어인들의 현은 공간을 無化시켜 더운 자아에 까지 이르게 한다.>.(43) 발터 자르 부인의 경우 이러한 내부의 현을 모아서 한 곳에 두시시키는 현은 그녀의 뜨거운 모성애에서 비롯되고 있다. <모성애적 비전에 의해서 죽음을 내내본 그녀는 집안의 모든 일들을 성리해 나갔다...그녀 생애의 마지막 날들은 비애를 내다보는 힘에 의하여 더저운 어려움을 준비하는데 바쳐졌다.>.(44) 남편이 근대담구에 미쳐 심안을 과민로 돌아가는 동안 그녀는 집안의 불행한 상태를 떠나 예견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모성애적 비전과 더불어 주목되는 것은 마브그리프와 엠마뉴엘의 사랑의 시선이다. 이집내의 순수한 사랑의 화일로 가득찬 이들은 첫 시선 밑으로 서로를 포용한다. <이들의 깊고 순진한 시선은 똑같이 어떤 놀라움을 표현했다. 서로의 영혼 속을 모두 읽어버렸다. 똑같은 고백을 하던서.>.(45) 앞서 말했듯이, 발가르는 五指 등 시수술 가장 중요시 하면서 존재 내부의 유체 전달을 위한 기선을 두리 강조하고 있다. <순진한 눈 강연한 영혼을 표현하는 엠마뉴엘의 시선은 그녀의 영혼 속에, 나치 수침 소리가 청각에 파동 undulation 을 퍼뜨리듯이, 진동하는 빛을 던지고 있었다.>.(47) 감각과 시각이 함께 얽혀드는 이 아름다운 분상에서 우리는 정연적인 시선에 의해 전달되는 상상적 유동현상을 분명 알아볼 수 있다. 이러한 순결한 두 영혼 사이의 交感이 <진동하는 빛>, <진정한 미상>, <분견>, <견율>, <놀라운 磁氣현상>등으로 고조되면서 표현되고 있다. <이들의 순결한 사랑의 내외는 친절한 微風처럼 물결지어 날에서 달로 전달되었다...이 소녀가 자기의 감정과 일치해서 전율하는 영혼은 느끼기 진정한 사랑의 표현을 느낀다면, 그것은 한 놀라운 磁氣현상 magnétisme 의 존재를 말하느 게 아닌지?>.(48) 이 무것도 숨기지 못하는 진실한 정연에서 비롯되는 이들의 강렬한 기선은 이제 완전한 交感의 경지에 이른다. <그녀에게 던진 엠마뉴엘의 시선은 공감을 밀려주었다...그는 그녀라는 그녀의 슬픔을 같이 했으며, 그의 순진한 시선은 그녀 가슴에 감미로운 눈물을 흘렷냈다.>.(49)

[거죽]의 <내서 현을>에서 시작된 유동성 연구가 「푸이 랑베르」의 <의지론>을 거쳐, 인물 사이의 <교감>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이 작품에서 우리는 발사크 상상현상의 근본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복을 보게 된다. 부인이 죽은 후, 성격이 매우 나쁜녀 의거거 일몰인 딸 마브그리프는 아버지 발파사르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이미 많은 양금을 도기니 속에 깊이 넣은 그녀가 밖의 빈랭함에 견망하여 실험실로 올라가 버리는 순간, 그녀는 또한 내적 전율현상에 사로잡힌다.

<그가 사라질 후에 마브그리프는 사기를 핑에서 이턴시키는 듯한 무기덕함 stupeur 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이미 사기가 있던 응결점에서 빠져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기의 육체를 느끼지 않았다. 그녀

(40) Ibid, p.723.

(41) Ibid, p.720.

(42) Ibid, p.666.

(43) Ibid, p.704.

(44) Ibid, p.665.

(45) Ibid, pp.731-732.

(46) Ibid, p.740.

(47) Ibid, p.739.

(48) Ibid, p.747.

(49) Ibid, p.764.

는 날개를 가졌고, 무한하고 공간과 시간을 집근시키며, 어떤 신비한 손질이 비례를 가리우는 상막을 걸어 머리는 정신세계의 공간 속으로 飛翔했다. 그가 계단을 올라가면서 울리대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그녀에게는 마치 벼락이 흔들린 것 처럼 느껴졌다. 그가 실험실로 들어간다고 느낀 순간에는 공포의 같은 진동이 느껴졌다. 영혼 속에 적히는 듯한 섭광은 피프리는 예감에 사로잡혀 그녀는 화실 치린 빛도 소리로 없는 계단을 내달았다. 그리고 이마에 권총을 대고 있는 아버지를 보았다).<sup>(50)</sup>

마치 유동성 인구의 결론이더라도 하듯이 위의 분장에는 발자크 상상력의 모든 특성이 들어있다. 거부당한 발자크가 지실해 버티려는 급박한 순간, 그의 밟걸음 소리를 듣자 마르그리뜨의 내부는 보란 반응을 일으키며, 그것은 곧 그녀로 하여금 마비와도 같은 내지 무기력에 잠기게 한다. 그리고 마치 링베르가 마지막 순간에 육체와 정신을 분리시켜 정신세계의 회화로 비정하듯이, 그녀 역시 육체에서 멀어져 나기 순수 정신 공간 속으로 비상한다. 그리고는 어떤 섭광이 내부로 뿜어나감을 느낌과 동시에 그녀는 모든 것을 내다보는 비경울 기기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수직적으로 비상하는 상징력이 『세라피나』에서 완전한 신비주의로 이르게 된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이제 『질레틴구』를 맺으면서 발자크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지면서 찾고자 하는 <절대 l'absolu>에 대하여 간신히 언급하기로 한다. 카스텍스가 말하듯이 그가 찾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化石이나 다이아몬드가 아니다. 그것들은 다만 <질레틴구>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일 뿐이다. 극장에서 그는 자기가 찾는 <질레>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유일한 힘에 의해 변용되며 모든 창조에 공동되는 실체, 바로 그것이 질레에 의해서 제기되는 분개의 핵심이다>.<sup>(51)</sup> 물론 누구도 그 실체가 무엇일지 알 수 없기에 그의 부인은 <질레에 대한 도전>이라며 그의 실패를 예언하고 있다. <빛, 열기, 자기, 전기 등은 동일한 원인의 산물이며 그들 사이의 차이는 부연가 모를 한 가지 원리에 기인할 뿐이다>.<sup>(52)</sup> 결국 발자크의 질레 탐구는 이러한 유동성 탐구를 통한 광기의 신비 탐구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곧 인간과 우주의 <내적 비밀>에 대한 탐구란 의미라며, 그래서 유동성 인구는 그의 작품의 신비적 측면과 연결되는 것이다.

## Ⅶ. 결 론

지금까지 발자크의 작품은 통해서 유동성 테마를 분석해 보았다. 실컷 <불꽃의 물질>이라는 발자크 자신의 말처럼, 그것은 존재 내부의 열기의 전달 현상이다. 그래서 독자는 발자크의 뜨거운 인물의 주변에서는 항상 유동성 현상이 비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불>이 아닌 <순화된 열기>의 표현으로서, 특히 그것이 여성 인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발자크에 있어서 유동성은 내성에 대한 인식작용은 물론, 상상작용의 근본이 됨을 지적하였다. 그에서 존재 내부의 유동현상으로서 신경의 흐름, 피의 흐름, 意志, 石化 등의 분체를 분석해 보았다. 또 『루이 랑베르』에서 <미진—유동성>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그 테마가 어떻게 환시지 visionnaire로서의 발자크에 대한 이해의 열쇠가 될 수 있는가를 지적하였다.

발자크의 인식과 상상작용의 근본으로서의 유동성 테마가 여기에서 다루어진 작품들 외에도 『인간회극』 속의 거의 모든 작품에서 적잖이 표현되며, 또 그것 자체가 하나의 상상적 결과임을 감안한 때, 그 테마에 대한 인구는 중요성을 더하는 것 같다. 특히 앞서 기증 언급했듯이 발자크의 질정도정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보이는 『세라피나』의 의 인개 인구의 중요성은 서의 절대적인 것 같다.

## Bibliographic

### 1. Balzac, *Pléiade* I, X, XI, Gallimard

(50) Ibid, p. 793.

(51) Ibid, p. 717.

(52) Ibid, p. 770.

2. Jean Starobinski, *La relation de critique*, Gallimard, 1970.
3. George Poulet, *La distance intérieure*, Plon, 1952.
4. J. P. Richard, *Etudes sur le romantisme*, Seuil, 1970.